

주간 2017. 07. 31. ~ 2017. 08. 06.

전남농업정보

146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가축사육 및 가격전망
-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 신선농산물 생산수출기반 확대
- 2017년 전남에서 생산한 블루베리 홍콩 수출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무화과 하우스 『무가운 보온재배』 개발 보급
- 방울토마토 농가 『어깨동무 컨설팅』 큰 호응

정책동향

- 미래농업 선도할 청년 창업농장 육성한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농가 컨설팅 나서

사업신청 및 홍보

- 전남의 젊은 농부들, 보성에서 미래를 꿈꾼다
- 예초기 안전사고 88% 여름철 집중... 주의 필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31일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으며,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2~24도, 최고기온: 29~32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4~10mm)과 비슷하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가축사육 및 가격전망
- ▶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전남 신선농산물 생산수출기반 확대
- ▶ 2017년 전남에서 생산한 블루베리 홍콩 수출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4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6

- ▶ 가을배추 기계정식묘 생산을 위한 인산칼슘 처리 효과
- ▶ 커피 추출물과 오일을 혼합한 커피 블렌딩 홍차 제조 방법
- ▶ 양파 기계 정식을 위한 육묘 시 관수 방법
- ▶ 양파(남양)
- ▶ 무화과 하우스 『무가온 보온재배』 개발 보급
- ▶ 시설재배 무화과 『대만총채벌레』 방제법 개발
- ▶ 방울토마토 농가 『어깨동무 컨설팅』 큰 호응
- ▶ 토마토 안정 수출 위해 담배가루이 철저히 관리해야
- ▶ 킬레이트제 활용해 시설재배지 비료 사용↓, 수확량↑
- ▶ 전력 사용량 많은 여름, 축사 정전 주의

6. 정책 동향 29

- ▶ 미래농업 선도할 청년 창업농장 육성한다
- ▶ 7.28일부터 AI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농가 컨설팅 나서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순천시, 월등 우박피해 복숭아 농가 돕기 할인판매 행사 추진
- ▶ 광양시, 웰니스팜 치유농장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 ▶ 강진군, 농업인의 수호천사 안전공제·농작물재해보험
- ▶ 해남군, 밭떼기 거래 시 농산물 표준계약서 작성하세요
- ▶ 영광군, 정부보급종 보리·밀 종자 신청하세요
- ▶ 신안군, 농촌교육농장 2개소 운영 체험프로그램 풍성

8. 해외 농업정보 39

- ▶ 미국, 신선 과일 및 야채 소비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
- ▶ 미국, 식품시장에 천연색소 대체 움직임 활발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7. 31.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3% 상승함
 - 옥수수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과 같은 가격으로 변화 없이 마감함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6% 상승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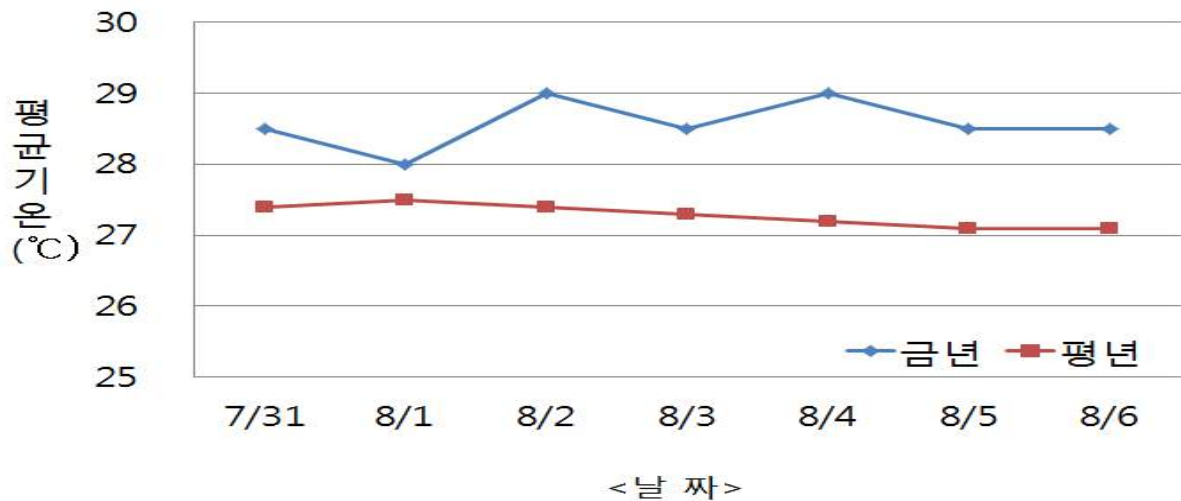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3

- ▶ 한국농수산대학, 2018학년도 신규학과 개설 및 신입생 550명 모집
- ▶ 전남의 젊은 농부들, 보성에서 미래를 꿈꾼다
- ▶ 예초기 안전사고 88% 여름철 집중... 주의 필요
-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 가을의 시작, 입추(立秋)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7월 31일~8월 06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8.6℃ (평년대비 1.3℃ 높음)
- 최고기온 : 32.3℃ (평년대비 0.4℃ 높음)
- 최저기온 : 24.9℃ (평년대비 1.0℃ 높음)
- 강 수 량 : 7.6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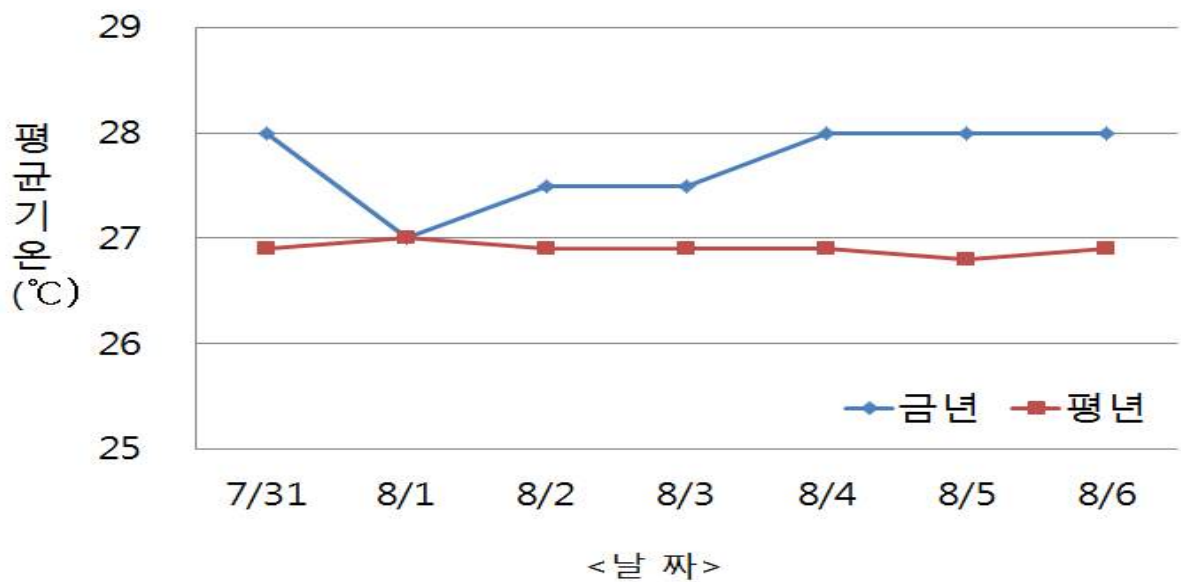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8.6	27.3	1.3	32.3	31.8	0.4	24.9	23.9	1.0	7.6
7. 31.(월)	28.5	27.4	1.1	32.0	31.9	0.1	25.0	24.1	0.9	6.0
8. 01.(화)	28.0	27.5	0.5	31.0	32.0	-1.0	25.0	24.1	0.9	7.2
8. 02.(수)	29.0	27.4	1.6	33.0	31.9	1.1	25.0	24.1	0.9	8.7
8. 03.(목)	28.5	27.3	1.2	33.0	31.8	1.2	24.0	23.9	0.1	8.3
8. 04.(금)	29.0	27.2	1.8	33.0	31.8	1.2	25.0	23.7	1.3	7.3
8. 05.(토)	28.5	27.1	1.4	32.0	31.7	0.3	25.0	23.6	1.4	7.6
8. 06.(일)	28.5	27.1	1.4	32.0	31.8	0.2	25.0	23.5	1.5	8.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7월 31일~8월 06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7.7℃ (평년대비 1.4℃ 높음)
- 최고기온 : 30.7℃ (평년대비 0.2℃ 낮음)
- 최저기온 : 24.7℃ (평년대비 0.8℃ 높음)
- 강 수 량 : 4.1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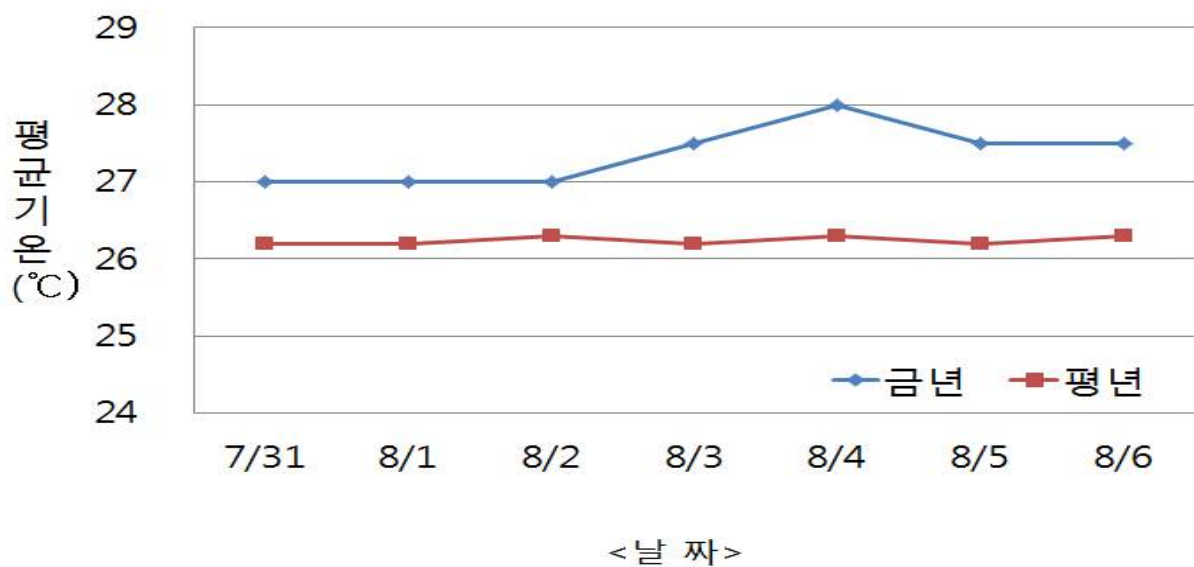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평년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27.7	26.9	1.4	30.7	31.0	-0.2	24.7	24.0	0.8	4.1
7. 31.(월)	28.0	26.9	5.0	31.0	30.8	0.2	25.0	24.0	1.0	4.1
8. 01.(화)	27.0	27.0	0.0	29.0	31.0	-2.0	25.0	24.0	1.0	3.7
8. 02.(수)	27.5	26.9	0.6	31.0	30.9	0.1	24.0	24.0	0.0	4.3
8. 03.(목)	27.5	26.9	0.6	31.0	31.0	0.0	24.0	24.0	0.0	4.0
8. 04.(금)	28.0	26.9	1.1	31.0	31.0	0.0	25.0	23.9	1.1	4.0
8. 05.(토)	28.0	26.8	1.2	31.0	31.0	0.0	25.0	23.9	1.1	4.6
8. 06.(일)	28.0	26.9	1.1	31.0	31.0	0.0	25.0	23.9	1.1	4.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7월 31일~8월 06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7.4℃ (평년대비 1.1℃ 높음)
- 최고기온 : 30.1℃ (평년대비 0.8℃ 높음)
- 최저기온 : 24.6℃ (평년대비 0.7℃ 높음)
- 강 수 량 : 5.5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7.4	26.2	1.1	30.1	29.4	0.8	24.6	23.8	0.7	5.5
7. 31.(월)	27.0	26.2	0.8	30.0	29.2	0.8	24.0	23.8	0.2	6.7
8. 01.(화)	27.0	26.2	0.8	29.0	29.3	-0.3	25.0	23.9	1.1	5.1
8. 02.(수)	27.0	26.3	0.7	30.0	29.4	0.6	24.0	23.9	0.1	5.5
8. 03.(목)	27.5	26.2	1.3	31.0	29.4	1.6	24.0	23.9	0.1	5.0
8. 04.(금)	28.0	26.3	1.7	31.0	29.5	1.5	25.0	23.8	1.2	3.8
8. 05.(토)	27.5	26.2	1.3	30.0	29.4	0.6	25.0	23.7	1.3	5.8
8. 06.(일)	27.5	26.3	1.2	30.0	29.4	0.6	25.0	23.8	1.2	6.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가축사육 및 가격전망

□ 한육우

○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과 비슷

- 9월은 전년 동기보다 1% 감소한 276만 마리(한우 263만 마리) 전망

○ 8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거세우 출하 물량의 증가로 8월 도축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 전망

- 전년대비 한우 도매가격의 약세로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수준 전망

○ 8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보다 약세 전망

- 공급물량 증가와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8월 한우 1등급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약세 전망

- 9월 한우 도매가격은 추석 전 수요 증가로 전월보다 강세 전망

○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단위 : 원/지육kg(만원/600kg))

구 분	7월	2017년	
		8월	9월
2017년	16,680(597)	7월대비 강보합 예상	8월대비 강세 예상
2016년	18,973(680)	18,892(677)	19,376(694)
평년	15,142(542)	15,648(561)	16,230(581)

* () 7월 1~21일까지의 평균 가격임

□ 돼지

- 6월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1,040~1,060만 마리 추정
- 모돈수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8월 돼지 도축 마릿수 증가 전망
- 국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8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2만 7천톤 내외 전망
- 돼지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나 도매시장 출하 감소,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탕박 기준 kg당 평균 5,200~5,500원 전망

□ 육계

- 6월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대비 6.6% 증가한 27,792톤
- 6월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보다 2.4% 증가한 529만 마리, 총 사육 마릿수는 3.9% 증가한 882만 마리 추정
- 종계 성계 사육 증가로 7월 병아리 생산량은 전년보다 1.3% 증가 추정
- 8월 도계 마릿수는 육용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대비 1% 증가 전망
- 8월 도계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하락한 kg당 1,600~1,800원 전망
- 노계 도태 감소와 신계군 생산 가담으로 8월 이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높을 전망
- 9월 육계 산지가격 kg당 1,500~1,600원, 10월 1,700~1,800원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 최근 가격동향

- 6월까지 평년대비 낮은 가격을 보이던 채소, 과일류의 가격이 최근 호우피해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상추·오이 등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 채소류의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 계속된 호우로 침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고온지속에 따라 생육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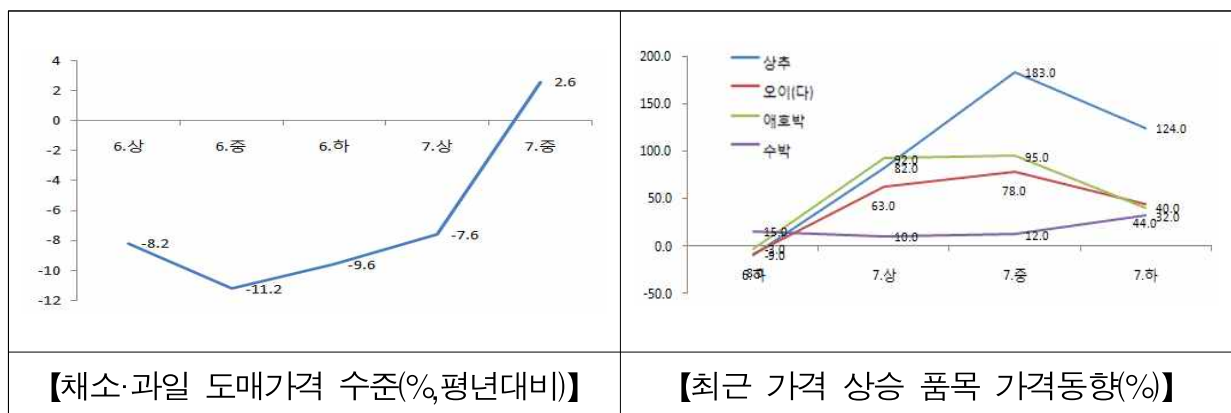
□ 수급전망

- 여름철 채소류의 주출하지는 강원·경기북부 권역으로 향후 채소류 수급은 이 지역의 일기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지역의 단기 기상 전망을 보면 강우일이 일부 있으나 폭염(주의보 : 33℃이상 2일 이상 지속)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채소류 생육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 (배추·무) 최근 기상여건으로 8월 상순까지 가격 강세가 예상되나, 현재 생육상황으로 볼 때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정상 출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기타 채소·과채) 오이·애호박·상추 등은 최근 기상 영향 등으로 단기적으로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나, 8월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생육이 양호하여 출하량 증가가 기대돼 가격은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 수박의 경우도 주 출하지 침수 등으로 높은 가격을 보였으나, 8월 이후는 출하지 교체와 복숭아·포도 등의 본격 출하로 향후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수급안정 대책방향

- (고랭지 배추·무) 생육관리 지원, 산지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여름철 출하물량 관리 강화
 - 고랭지 관측지도협의회 및 안정생산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농진청, 6~9월)
 - 작황급변에 즉시 대응을 위한 산지기동반 운영(KREI, 7~9월)
- 수급조절 물량의 탄력적 운용, 시장심리 안정 노력 강화
 - 수급조절물량 29천톤(배추 22천톤, 무 7천톤) 확보
 - 현 출하량 감소 상황을 고려, 일별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300톤/일)
- (기타 채소류) 피해지역 생육관리 지원, 향후 출하 지역의 물량 확대 유도
 - 지역 농업기술지원 기관(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 강화
 -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출하 확대를 위한 산지 지도 강화
- (소비자 부담 완화) 가격상황에 따라 할인 행사 등 추진
 - 배추 비축물량 소비자 직공급 추진(7. 23.~7. 29.)
 - 수박 등 과일류의 높은 가격 지속 시 대체 제철과일(복숭아·포도 등) 소비 홍보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 신선농산물 생산·수출기반 확대

- 농식품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5곳 추가 지정 받아 총 26곳 운영 -
- 전라남도는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수출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전남지역 5개소를 비롯한 전국 10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 전남지역 지정 단지는 담양 대숲연합사업단(방울토마토), 담양 창평 새벽이슬딸기수출전문단지, 고흥 홍양영농조합법인(파프리카), 곡성 딸기생산단지, 나주 이노그린영농조합법인(팽이버섯)이다.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정은 채소, 과수, 버섯, 화훼류 등 집단화된 농산물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 매년 4월말과 10월말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의 사전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실적평가, 현장심사,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한다.
- 단지 지정을 받으면 농식품부의 시설원에 현대화사업 우선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해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수출 물류비 인센티브 지원과 농가 조직화 교육 및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 등 단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 전남지역 농산물전문생산단지는 이번 신규 지정 5개소를 포함해 총 26개소가 지정됐다. 2016년까지 지정받은 기존 21개 단지의 수출액은 230억원 규모다.

* 출처 : 전라남도

2017년 전남에서 생산한 블루베리 홍콩 수출

- 말레이시아·홍콩 등 수출국 다변화 추진 -

- 2017년 전남에서 생산한 블루베리가 홍콩으로 수출 길에 오른다. 홍콩 수출은 6월 6일 말레이시아 첫 수출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이면서 전국 최초이다.
- 이번 수출물량은 210kg으로 홍콩의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 판촉될 계획이며, 현지 소비시장의 반응에 따라 추가 물량과 횟수가 결정될 계획이다.
- 전남지역은 따뜻한 기후, 풍부한 햇볕, 깨끗한 환경 등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동남아시아 등 수출국 상류층이 선호하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 특히, 블루베리는 남부지방의 온난한 기후를 활용하여 3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확할 수 있으며, 남부하이부쉬, 북부하이부쉬, 래빗아이 등 다양한 품종을 순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 또한, 전남지역 블루베리 생산자로 구성된 (사)전남블루베리생산자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한 농가 간 정보교환과 공동구매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블루베리 국내 시장 안정화와 품질 균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7. 3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31)	1주일전 (07/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2,100	32,020	31,860	36,200	41,467	↓ 11.3	↓ 22.6
	콩(백태)	35kg	171,800	171,800	170,800	152,000	163,467	↑ 13.0	↑ 5.1
	고구마(밤)	10kg	34,200	33,600	31,200	29,850	32,940	↑ 14.6	↑ 3.8
	감자(수미)	20kg	34,400	32,800	29,960	19,200	22,553	↑ 79.2	↑ 52.5
채소류	배추(봄)	1kg	1,210	1,020	574	-	610	-	↑ 98.4
	양배추	10kg	7,000	5,300	4,180	4,750	6,230	↑ 47.4	↑ 12.4
	오이(다다기계통)	10kg	45,667	37,333	17,933	23,417	27,846	↑ 95.0	↑ 64.0
	애호박	8kg	25,400	23,000	13,320	12,250	15,303	↑ 107.3	↑ 66.0
	건고추(화건)	60kg	680,000	680,000	610,000	650,000	764,000	↑ 4.6	↓ 11.0
	풋고추	10kg	55,400	49,400	42,640	48,500	37,740	↑ 14.2	↑ 46.8
	마늘(깐마늘)	20kg	128,000	128,000	129,000	134,250	111,000	↓ 4.7	↑ 15.3
	양파	20kg	25,000	25,200	22,160	15,150	16,277	↑ 65.0	↑ 53.6
	당근	20kg	29,000	29,000	29,760	33,000	32,260	↓ 12.1	↓ 10.1
	대파	1kg	1,630	1,410	1,428	1,410	1,457	↑ 15.6	↑ 11.9
	파프리카	5kg	15,200	14,200	14,080	14,650	15,673	↑ 3.8	↓ 3.0
	참외	10kg	21,400	20,800	25,880	23,200	22,987	↓ 7.8	↓ 6.9
	토마토	10kg	16,400	15,600	16,520	18,800	17,400	↓ 12.8	↓ 5.7
	방울토마토	5kg	17,000	13,800	14,960	14,500	12,210	↑ 17.2	↑ 39.2
	수박	1개	15,800	16,400	15,200	14,800	15,047	↑ 6.8	↑ 5.0
과일류	사과(후지)	10kg	41,800	42,000	40,480	38,800	50,756	↑ 7.7	↓ 17.6
	배(신고)	15kg	58,000	57,800	56,440	54,800	56,933	↑ 5.8	↑ 1.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31)	1주일전 (07/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8,600	521,000	521,000	540,000	553,000	↓ 4.0	↓ 6.2
	느타리버섯	2kg	10,800	12,000	12,680	12,950	13,530	↓ 16.6	↓ 20.2
	새송이버섯	2kg	7,000	7,000	7,800	7,000	7,307	-	↓ 4.2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013	7,970	7,816	7,825	6,676	↑ 2.4	↑ 20.0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49	2,410	2,345	1,986	1,957	↑ 13.2	↑ 14.9
	닭고기	1kg	5,089	5,166	5,358	5,082	5,460	↑ 0.1	↓ 6.8
	계란(특란)	30개	7,702	7,789	7,999	5,056	5,413	↑ 52.3	↑ 42.3
	우유	1리터	2,529	2,529	2,527	2,548	2,475	↓ 0.7	↑ 2.2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7. 31.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04 천원	5,293 천원	5,996 천원	↑ 2.1	↓ 9.9
	거세	6,708 "	6,475 "	7,246 "	↑ 3.6	↓ 7.4
송아지 (6~7월)	암	2,930 "	2,996 "	3,237 "	↓ 2.2	↓ 9.5
	수	3,641 "	3,813 "	3,979 "	↓ 4.5	↓ 8.5
육우(600Kg)		2,701 "	2,404 "	3,277 "	↑ 12.4	↓ 17.6
젖소수송아지(7일령)		149 "	149 "	395 "	- 0.0	↓ 62.3
돼지(110kg)		453 "	421 "	391 "	↑ 7.6	↑ 15.9
육계(원/kg)		1,603 원	1,999 원	1,545 원	↓ 19.8	↑ 3.8
계란(원/특란10개)		1,744 "	1,775 "	1,051 "	↓ 1.7	↑ 65.9
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가을배추 기계정식묘 생산을 위한 인산칼슘 처리 효과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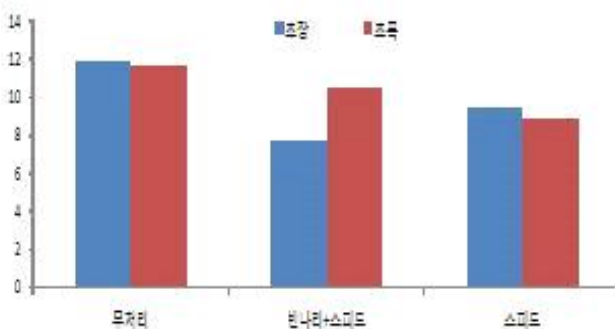
- 배추 재배 생력화를 위한 기계 이식용 향상 정식묘 생산 조건 구명 필요
- 생산비 : 10a당 1,684천원(인건비 34, 비료 19.1, 종묘비 5.9% 순)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육묘기간 및 육묘트레이 : 8~9월 상순(20~25일), 200공
- 처리방법 : 인산칼슘제(스피드) 2000배액을 떡잎 전개 후 5일 간격으로 3~5회 살포
- 기계정식 묘소질 : 엽수는 5매 이내, 초형은 직립형, 셀형성도 4이상

□ 기대 및 파급효과

- 노력시간(10a) : 관행 70.2시간→보행 1조식 56.9(19% ↓), 승용 2조식 55.3(21.2% ↓)
- 배추 기계정식을 통한 노력비 절감으로 배추 재배 생력화 : 10a당 13.7% 절감



인산칼슘 처리에 의한 묘소질 변화(2016)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장미향, 정종모, 손동모, 임경호

■ 커피 추출물과 오일을 혼합한 커피 블렌딩 홍차 제조 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향미와 맛 보완한 꽃, 허브를 혼합한 블렌딩 홍차 판매 유통되고 있음
- 젊은 층 수용 유입과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
- 커피의 향·미와 홍차 색 맛이 혼합된 신세대 선호 제품 개발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커피 추출액 첨가 블렌딩 홍차 제조 방법
 - 찻잎을 채취하여 시들리기, 비빔, 발효하여 홍차 제조
 - 발효가 완료된 찻잎에 에스프레소 추출한 커피 추출액 6%를 균일하게 뿌려준다.
 - 건조온도 110℃에서 25분 건조하여 제품을 완성한다.
- 커피오일 첨가 블렌딩 홍차 제조 방법
 - 홍차 제품 생산
 - 홍차에 커피오일 3%를 균일하게 뿌린다.
 - 커피오일을 뿌린 홍차는 40℃에서 20분간 건조



□ 기대 및 파급효과

- 10a에 커피 블렌딩 홍차 12백만원으로 일반홍차 대비 3백만원 증가
- 커피 블렌딩 홍차 제조로 차 소비 확대→500톤 소비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김영옥, 최정, 오봉윤, 이보배, 박장현

■ 양파 기계 정식을 위한 육묘 시 관수 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전남 재배면적 9,171ha(전국 18,015ha의 50.5%), 소득 194,182백만원(2백만원/10a), 생산량 569,472톤(전국 1,298,749톤의 43.8%), 생산액 2,068억원의 중요 작물
- 양파 생산비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되고 있어 양파재배 기계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계 정식용 건묘 생산을 위한 관수 방법 구명이 필요함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육묘 시 관수 및 재배 방법

육묘기	트레이 규격	1일 관수횟수 (초기-중기-후기)	1회 관수량 (1트레이당)	비 고
9월 초~ 11월 초	448공	2 - 1 - 1	700ml 이상	- 육묘초기 : 파종 후 1주~3주 - 육묘중기 : 파종 후 4주~6주 - 육묘후기 : 파종 후 7주~9주

※ 기타 관리는 양파 표준재배 육묘법에 준함

□ 기대 및 파급효과

- 생산성 향상(448트레이) : 기계정식 적합묘 388주 생산(1-1-1 298주대비 30% 증)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증가되는 비용 : 135,870 - 중기(파종 후 0주~3주) 관수 노력 및 인건비 · 21일×6,470원 = 135,870 ※ 단가산정 : 6,470원 최저시급('16)	○ 증가되는 이익 : 200,000 - 1-1-1 건묘 298주/448트레이 → 110판/10a - 2-1-1 건묘 388주/448트레이 → 85판/10a · 110 - 85 = 25판/10a · 25×8,000 = 200,000원 ※ 단가산정 : '16년 11월 양파 육묘시장 가격
○ 추정수익액(B-A) : 200,000 - 135,870 = 64,130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성준, 김효중, 손동모

■ 양파(남양)

□ 배경 및 필요성

- 전남 재배면적 9,171ha(전국 18,015ha의 50.5%), 소득 194,182백만원(2백만원/10a) 생산량 569,472톤(전국 1,298,749톤의 43.8%), 생산액 2,068억원의 중요 작물
- 양파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종자가격도 국내 육성 품종에 비해 60~70% 비싼 가격으로 시판되고 있어 경영비 증가
- 수입대체 국산 조숙, 내재해성, 다수성, 구피색 다양성 양파 신품종 육성 필요

□ 품종 주요특성

- 구고와 구경은 길고 넓으며 구형지수는 1에 가깝고 경도가 단단함
- 추대율은 높고 분구율은 낮음
- 초장과 엽수가 적고 엽과 위경이 두꺼움
- 썬파워 대비 '16년 수량 4%, 상품수량 8% 증수

□ 적응지역 : 주요 양파 재배 지역(무안·창녕 등)

□ 재배상 유의점

- 중만생 양파 재배법에 준하여 재배하고 파종기와 정식기 준수



【구 형태】
(좌) 남양, (우) 썬파워



【구 단면 형태】
남양



【구 단면 형태】
썬파워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성준, 김효중, 손동모

■ 무화과 하우스 「무가온 보온재배」 개발

- 노지 재배 보다 30일 가량 조기수확이 가능하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전남도 특산 과일인 무화과 조기수확을 위한 하우스재배 기술을 종합한 결과 겨울철 비닐하우스 내 다겹보온커튼과 축열주머니를 설치해서, 수확 후 정리된 무화과나무에 보온덮개와 비닐의 이중터널을 만들어 보온관리하면 노지보다 30일 가량 조기수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영암의 한 농가에 접목해서 실증한 결과 관행 재배보다 조기수확이 가능하였으며, 8월 하순 홍수 출하되는 물량을 조절하여 한 달 일찍 출하함으로써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최근 5년간 무화과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까지 최대 물량이 출하되고 있고 가격도 7월에 비해 2배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증농가에서는 10a면적에서 하루 130kg 이상의 과일을 수확하여 지역농협에 공동출하하고 있으며 1kg에 6,000~6,500원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 박재옥 박사는 “무화과 비닐하우스에 다양한 보온자재를 활용한 조기수확 재배기술을 연구하여 보다 많은 농가에 새로운 재배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시설재배 무화과 『대만총채벌레』 방제법 개발

- 종합적인 방제법 적용이 필수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시설재배 무화과에 많은 피해를 주는 대만총채벌레 방제법을 개발하고, 농가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해충은 크기가 1~1.5mm로 매우 작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각종 작물이나 잡초의 꽃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무화과에 침입하는 시기는 과일 직경이 2cm 내외일 때이며, 아래쪽에 달린 과일에 피해가 심하다.
- 무화과는 잎과 열매가 생육후기까지 계속해서 달리므로 해충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해충이 과일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합성농약으로도 방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대만총채벌레의 생태적 특징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방제법을 개발하였다.
- 우선 봄부터 과수원 바닥을 흰색의 멀칭재료로 피복하여 해충의 한살이를 방해하고, 파랑색 끈끈이트랩을 측창 주변에 매달아 예찰과 포획에 이용한다.
- 또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총채벌레를 막기 위해 측창 하부에 반사필름 설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하우스 주변의 제초작업을 할 때 유입량이 많아지므로 이 때는 반드시 적용 약제를 살포해서 시설 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방울토마토 농가 『어깨동무 컨설팅』 큰 호응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이 7월 25일 농업기술원에서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18호 대상으로 재배기술, 병해충, 경영·유통, 기술지원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어깨동무 컨설팅을 가졌다.
- 『어깨동무 컨설팅』은 전남농업기술원 손장환 박사가 2016년 개발한 기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컨설팅이다. 어깨동무 컨설팅은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과 전문가가 경영기록 분석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컨설팅이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에 배 어깨동무 컨설팅을 시작으로 6월에 사과, 7월 방울토마토, 9월 참다래, 11월 딸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 방울토마토 어깨동무 컨설팅은 참여농가 소통을 위한 어깨동무 의식을 시작으로 농가와 전문가 소개, 경영기록장 기록수준 평가, 전남과 전국 평균대비 농가별 수익성비교, 생산비 수준 등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면서 농가와 전문가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 방울토마토 어깨동무 컨설팅에 참여한 장흥군 선형렬 대표는 “경영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컨설팅을 통해 본인 농장의 경영수준과 경영상의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 앞으로 정밀한 경영분석과 소득향상을 위해 경영기록장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과 경영마인드를 갖추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토마토 안정 수출 위해 담배가루이 철저히 관리해야

- 휴작기에 소독 확실히, 말라죽은 식물체는 태워 없애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토마토를 안정적으로 재배해 수출 물량을 확보하도록 담배가루이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담배가루이는 유충이 직접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성충이 옮기는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토마토퇴록바이러스(ToCV: Tomato chlorosis virus)가 더욱더 심각한 피해를 준다.
-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나 토마토퇴록바이러스가 감염되면 토마토의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한다.
- 최근엔 수출용 토마토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전북에서 피해가 많아 과실 수확량이 줄어 수출 물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 담배가루이는 세계적으로 화학합성 살충제에 저항성이 빨리 나타나 육묘기 부터 정식 이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해충이다.
- 일반적으로 수출용 토마토는 7월 초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휴작기를 가지는 데 이때 소독을 철저히 한다.



【담배가루이 알, 유충, 성충】

- 수확이 끝나면 말라죽은 작물체는 온실에서 멀리 옮겨 태우거나 묻고 온실을 밀폐한 후 온도를 60℃ 이상 올려서 토양 소독 및 훈증용 살충제로 3~5일 정도 소독한다.
- 육묘 중인 토마토는 황색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수시로 담배가루이 발생을 관찰해 오염된 모종을 아주심기(정식)하는 것을 막는다.
- 여러 농가가 이웃한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수확을 끝내고 소독을 하는 것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소독이 끝난 온실의 측장, 천장, 입구에 방충망을 설치해 담배가루이 성충의 침입을 차단한다.
- 담배가루이의 중간 기주가 되고 있는 온실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도 휴작기에 잊어서는 안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피해】



【토마토퇴록바이러스 피해】

■ 킬레이트제 활용해 시설재배지 비료 사용↓, 수확량↑

- 작물 재배하면서 염류 제거하는 기술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시설재배 농가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염류장해를 해결하는 킬레이트제(Chelate) 활용기술을 보급한다.
- 그동안 염류장해를 해결하는데 담수제염, 객토, 흡비작물 또는 녹비작물 재배 등을 활용했으나 투입비용이 높고, 염류제거작물 재배기간에 소득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 킬레이트제 활용기술은 작물을 재배하면서 염류를 제거할 수 있고, 비료의 사용량 절감, 관주방식의 편리성, 수확량 증대하는 효과적인 기술이다.
- 킬레이트제 작용 원리는 토양 중의 칼륨, 칼슘, 미량원소, 불용화된 인산을 토양에서 분리해 작물이 쉽게 흡수하도록 도와준다. 대표적으로 디티피에이(DTPA : Diethylene triamine penta-acetic acid), 구연산 등이 있다.
- 디티피에이(DTPA)는 합성해서 만든 흰색 고체물질로 작물의 영양소와 고리모양으로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 염류 또는 토양의 고정된 성분을 떼어내 작물이 잘 활용하도록 해준다.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1년 동안 시설 오이를 재배해온 A농가의 경우 6개월 동안 디티피에이(DTPA)를 사용한 결과 토양 전기전도도가 23% 감소되고, 수량이 13% 증수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 2018년 신기술 시범사업에서는 먼저 염류가 집적(전기전도도 2.0 ~ 3.0dS/m-1 이상)된 시설재배 농가를 선정해 과채류에는 디티피에이(DTPA), 엽채류에는 구연산을 처방하는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 특히, 디티피에이(DTPA)를 찬물에 녹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염류농도를 줄이면서 알맞은 비료 사용량도 함께 제시해 농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6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열린 강좌』를 개최한 이후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작목반 단위로 교육을 개설하는 등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이 농가에 확산되도록 내년부터 전국 100여 농가에 킬레이트제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농업과학원 심근섭 기술지원팀장은 “농가 시설재배지 염류 집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농가 교육·상담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염류 집적지에서 킬레이트제 역할】

■ 전력 사용량 많은 여름, 축사 정전 주의

- 경보기 설치하고, 전력량 120% 자가 발전기 구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축사 정전 대비·대응 요령을 제시하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2016년 축사(돼지·닭·소)에서 발생한 화재(474건) 가운데 전기적 요인은 194건으로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 요즘 지은 축사들은 환기팬과 사료·물을 공급하는 급이·급수기 등 가축관리 시설들이 대부분 전기로 작동되기 때문에 정전이 될 경우, 가축의 생산성 하락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축사 온도를 낮춰주는 환기팬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부온도가 올라가고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닭이나 돼지가 폐사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고온에는 가축의 물 먹는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급수기의 위치와 수압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며, 찬물을 공급하는 것이 산유량(우유 생산량)이나 사료섭취량 향상에 더 좋다.
- 특히, 농가에서는 정전 발생을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
- 또한, 필요 전력량의 120% 용량에 맞는 자가 발전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으며, 구비돼 있다면 연료 점검과 시험운전을 통해 항상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개방식 축사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는 축사 바람막이를 최대한 열고 장애물을 없애 바깥바람이 들어오도록 하며, 그늘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 축사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릴 경우(미세분무) 축사 안의 상대습도가 올라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송풍팬이나 환기팬을 함께 사용한다.
- 여름철 갑작스런 벼락이나 전기합선에 의한 정전도 대비해야 한다.
- 갑작스런 벼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뢰침을 점검하고 전기 시설은 반드시 땅에 닿도록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전기선은 충분한 용량의 굵기로 설치하고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이프 등에 넣어 시공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이준엽 농업연구사는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기관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자가 발전기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가솔린 발전기】



【디젤 발전기】

6. 정책 동향

◆ 미래농업 선도할 청년 창업농장 육성한다

- 18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영농 초기 자본기술 등 지원 -
- 전라남도가 청년 예비농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 및 임차비를 지원해 창업농의 초기 투자자본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 대상은 영농 경력이 없는 만 18~39세 청년 예비농이다. 상근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농지(임차 포함)가 없어야 한다.
- 대상자별로 2천 500만원 한도에서 활용 가능한 하우스, 축사, 버섯 재배사 등의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 및 시설 1년 임차비를 지원한다.
- 사업 참여를 바라는 청년 예비농은 거주 읍·면·동에 8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시군이 심의를 거쳐 도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사업 대상자를 8월 말까지 선정하게 된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시설을 활용해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영농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영농교육을 이수하거나 선도농가와 멘토링제에 참여해야 한다.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굴한 2017년도 신규 시범사업이다. 시군비 포함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0개소를 육성할 예정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농가 컨설팅 나서

-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대상 농가를 건축법·축산법·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 8천 670농가에서 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 3천 906농가로 재설정해 농가 컨설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 이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기준을 재설정 하면서 신고 미만 배출시설(축사)을 보유한 축산농가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 미만 배출시설은 축종별로 소 100㎡ 미만, 돼지 50㎡ 미만, 닭·오리 200㎡ 미만 규모다.
- 환경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시설기준을 『무허가 및 허가면적』으로 하되, 면적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가 불가능하고, 이행강제금 50% 감면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이때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전체 철거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위반 부분만 철거를 통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1단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 농가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를 위해 전국 단위 중앙상담반을 구성해 농가 컨설팅 지원을 7~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상담반은 시군 인허가 부서, 지역축협, 건축사, 생산자 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컨설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축산자조금에서 부담기로 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7. 28일부터 AI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서면, 7. 27.)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6월 6일 발령한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7월 28일자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정은 6월 19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점검검사와 오리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전국 방역 지역이 7월 28일 모두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 농식품부와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산란계·육계·오리·토종닭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에서 AI 검사와 임상 증상 확인 등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또한,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54명)을 투입하여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AI 의심축 신고 요령 >

- ① (폐사율) 1일 평균* 대비 2~3배 높게 폐사율 증가 시
* 산란계 0.02%, 육계·육용오리 0.05~0.07%
- ② (산란율) 평균 산란율*에 비해 갑자기 3~5% 이상 산란율 저하 시
* (종오리) 80~85%, (산란계) 80% : 농가별 산란율은 일정수준 유지됨
- ③ (임상증상) 줄거나 청색증이 확인되는 경우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순천시, 월등 우박피해 복숭아 농가 돕기 할인판매 행사 추진

- 7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 -

- 순천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월등면 일원 원두막에서 복숭아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한다.
- 5월말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 우박 피해로 매년 개최해 왔던 복숭아 체험행사 미 개최로 원두막 판매 등 직거래를 통한 판매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복숭아 재배농업인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할인행사를 준비하였다.
- 월등복숭아는 123ha에서 80억원의 농가소득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순천시 대표적인 과수로, 시는 복숭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정고객 확보 및 직판장 운영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복숭아 중점 수확시기인 8월초 월등 복숭아 체험행사 개최를 지원해왔다.
- 이번 행사는 우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숭아 재배농업인과 고통을 분담하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할인판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월등 복숭아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박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한 할인판매 행사에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웰니스팜 치유농장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 8.2. ~ 9.13. 매실을 이용한 『2017년 웰니스팜스토리』 원데이스쿨 강좌 운영 -

- 광양시가 무더운 여름 웰니스팜스토리를 통해 시원한 여름보내기 7선을 선보인다.
- 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7개 치유농업 치유농장에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팜스토리 원데이스쿨을 개최한다.
- 웰니스팜스토리는 △매실수두부와 매실수 훈증테라피, 농가식사 △매실족욕체험과 매실쭈뽕 만들기, 식사 △매실쿠키 만들기과 매실수커피 △매실수 드립커피·매실고추장, 농가식사 △매실향기 테라피와 천연오일 만들기 △매실수 발효막걸리와 안주 만들기 △매실족욕, 보리빵, 농가식사, 효소음료 등 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선착순으로 접수되는 이번 강좌는 각 과정별로 20~40명을 선발하며,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1인 2강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농산물마케팅과 생활자원팀(☎061-797-3555, 3556)으로 연락하면 되며, 각 과정별로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 3천원의 체험료 자부담이 있다.
- 시는 이번 강좌를 통해 치유농업체험에 처음 참석하는 분도 쉽고 즐겁게 즐기며,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 강진군, 농업인의 수호천사 안전공제·농작물재해보험

- 강진군이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만 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 가능하고, 보장기간 1년을 갖는다. 보험 가입자는 농업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을 시 보상받을 수 있다.
- 전체보험료에 국비 50%, 군비 30%를 지원해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1형의 경우 1인당 보험료는 10만 8,500원으로, 농가부담금은 보험료의 20%인 2만 1,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53개 품목의 농작물과 원예시설 등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작물별 생육기간에 따라 다르다. 콩은 가뭄으로 파종이 지연돼 7월 31일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됐다. 가을 감자는 9월 8일,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및 버섯재배사와 버섯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 2017년 6월말 현재 보험 가입실적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3천 40명에 3억 5,000여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2천 379명 3억 3,400여만원이다. 군은 향후 농업인 보험료 가입 확대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 출처 : 강진군

■ 해남군, 밭떼기 거래 시 농산물 표준계약서 작성하세요

- 채소류 가격 등락 시 농가 피해 예방 -

- 해남군은 농산물 밭떼기 시 발생되고 있는 재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포전매매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해남군은 농업인 누구나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에 비치, 표준계약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양파 품목은 서면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상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생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표식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산물 표준계약서 보급은 매년 채소류 포전거래 시 농가와 유통상인 간 구두 계약하는 사례가 많고, 구두계약 시 채소류 가격 등락에 따라 잔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의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군은 본격적인 배추 정식시기를 앞두고 표준계약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출처 : 해남군

■ 영광군, 정부보급종 보리·밀 종자 신청하세요

-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생산된 정부보급종(보리·밀) 종자 160톤을 확보하여 농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 공급대상 품종은 흰찰쌀보리 60톤·새쌀보리 70톤·금강밀 30톤이고, 가격은 20kg/한포에 쌀보리는 소독분 29,950원, 미소독분 28,530원이다. 금강밀은 소독분이 28,600원, 미소독분 27,180원이다.
- 종자 신청은 8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받고, 종자공급은 9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에서 한다.
- 한편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은 엄격한 종자검사와 품질관리를 거쳐 합격된 우량종자로 종자의 발아율이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된다.
- 기타 정부보급종 신청과 관련된 문의 및 보리·밀 보급종 품종별 특성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2-3971)이나 영광군농업기술센터(061-350-48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출처 : 영광군



■ 신안군, 농촌교육농장 2개소 운영 체험프로그램 풍성

- 신안군 농촌교육농장이 여름 휴가철 가족과 함께 바다도 즐기며 배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관내 농촌교육농장은 2곳(청푸름농장, 신안바다정원)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 자연환경의 강점인 바다, 갯벌체험은 물론 1년 내내 다양한 작물을 재배·수확·가공 등 아이들의 학교 수업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청푸름농장(대표 서명순)은 자은도라는 섬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으로 농장체험, 물고기잡이 체험, 식생활체험, 섬역사힐링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은 1박 2일형 『섬팍평』이 인기 프로그램이며 농촌진흥청에서 품질인증을 받았다.
- 압해읍에 위치한 신안바다정원(대표 김혜정)은 바다가 바로 보이는 교육농장으로 토마토 농장체험, 갯벌체험, 압화공예 프로그램이 인기이며, 도내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안군 농촌교육농장 방문하여 바다와 함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 간의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신안군



8. 해외 농업정보

◆ 미국, 신선 과일 및 야채 소비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

- 미국 내 신선 과일 및 야채 소비가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5월 신선 과일 및 야채 소비는 2008년 11월과 비교했을 때 야채는 20.6%, 과일은 16.2%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는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 경제그룹이 13일 발표한 『Fresh Fruits and Vegetables Consumption: The Price is Right』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 신선 과일·야채의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가공 과일·야채 소비는 같은 기간 소비 증가율이 9.9%로 비교적 낮았다. 또한 신선 과일 야채 소비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가공 과일 야채 소비는 최고점을 찍은 2007년 11월 보다 여전히 10.8%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가격과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 때문이다.
- 냉동을 포함한 가공 과일·야채 제품의 가격이 신선 과일·야채에 비해 크게 저렴했던 과거와 달리 가격 상승으로 최근에는 신선 제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또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역시 신선 과일·야채 소비 증가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건강증진 수요가 늘면서 과일과 야채를 찾는 젊은 세대가 늘었기 때문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미국, 식품시장에 천연색소 대체 움직임 활발

- 인공색소 섭취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커지며 식품 제조업체들이 인공색소를 천연색소로 대체한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 푸드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인공색소를 향한 소비자들의 거부감과 섭취 우려는 FDA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체에 해가 없고, 섭취 가능하다고 알려진 승인된 식용색소도 소비자들은 가능한 섭취를 피하고 싶어 하며 이는 식품 제조업체들이 천연색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 FoodDIVE에 따르면 북미지역 소비자들의 29%는 인공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는 인공색소 대신 천연색소를 사용한 제품 구입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맞춰 천연색소를 사용한 제품도 늘고 있다. 현재 퍼플콘, 레드비트가 적색 40호(Red No. 40)를, 강황, 아나토(Annatto), 파프리카가 황색 5호(Yellow No.5)와 황색 6호(Yellow No.6)를 대체하고 있다.
-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미국에서 새로 출시된 식음료의 68%가 천연색소를 사용한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 허쉬사는 2015년부터 초콜릿에 사용되던 황색 5호를 아나토에서 추출한 천연색소로 대체하고 있으며, 네슬레사도 올해 출시한 RTD 차 제품을 인공색소는 물론 인공감미료와 GMO 없이 출시를 밝혔다.

- 맥도날드도 지난 인공색소를 뺀 바닐라 소프트콘을 전국 1만 4,000개 매장으로 확대했다.
- 그랜드 뷰 리서치사는 1월, 전 세계적으로 천연색소를 사용한 식품의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2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 그러나 천연색소의 시장 확대를 막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존재한다. 천연재료의 수요가 높아질수록 원재료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색소 생산과정에서 생산비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보관 및 유통이 까다로워지는 문제점도 생긴다. 때문에 식음료 전반에 여전히 인공색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색소 대체 움직임은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천연색소 선호는 금세 사라질 트렌드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식품 원재료와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클린라벨』이 식품업계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천연색소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시사점은 천연색소 사용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되고 있음. 특히 부모가 된 밀레니얼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한 식음료, 간식을 구입할 때 인공색소와 감미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특별히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7. 31.(시카고 선물거래소)

□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간 하락을 보인 밀·옥수수·대두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상황(▲0.3%)

- 전일대비 0.3% 상승하였다. 최대 생산지인 노스다코타의 밀 품질 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미국의 경질 붉은 봄밀의 수확량 전망치가 10년 이래 가장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밀의 주간 선물 가격은 전주대비 2.5% 하락하였다.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 전일과 같은 가격으로 변화 없이 마감하였다. 6에서 10일간의 일기 예보는 옥수수 벨트에서는 평균 기온을 보여주었으며, 북부 평야에서는 평균을 상회하는 기온을 보여주었다. 또한 8월에 들어서면서 강수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간의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주대비 0.9% 하락하였다.

○ 대두 선물시장 상황(▲0.6%)

- 미국 중서부의 주요 재배지역에서의 건조한 기후에 대한 예보로 인해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일대비 0.6% 상승하였다. 최근 대두 선물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 주간의 대두 선물가격은 전주대비 0.5% 하락하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한국농수산대학, 2018학년도 신규학과 개설 및 신입생 550명 모집

- 농수산 · 도시인재 · 일반전형 등 수시모집으로 신입생 모집 -
- 한농대는 변화하는 농수산업 현장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신규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 4개 학과 신설 및 3개 학과 분과하여 18개 학과 운영
 - 변화하는 농수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목 확대 개설
 - 재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 비율 확대
 - 후계 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교과목 통합·조정
- 한농대는 9월과 10월 수시모집(농수산인재, 도시인재, 일반전형) 원서접수를 진행해 2018학년도 신입생 550명 모집
 - 농수산인재·도시인재전형 원서접수[9. 11.(월) ~ 29.(금)]
 - 농수산인재전형 : 농수산계열 고교, 농어촌 소재 고교 출신 지원(110명)
 - 도시인재전형 : 특별·광역시 소재 고교 출신 지원(58명)
 - 일반전형 원서접수[10. 10.(화) ~ 23.(월)]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 지원 가능(382명)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의 젊은 농부들, 보성에서 미래를 꿈꾼다

- 전남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 개최 -

- 전라남도4-H연합회(회장 강민석)는 전남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을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4-H회원과 지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 한국차 소리문화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야영교육은 『농업이 희망이다! 미래를 꿈꾼다!』라는 주제로 △4-H발전 토론회 △보성의 역사문화와 6차산업 체험 △협동심&리더십 배양 훈련 △시군별 간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특히, 지(智), 덕(德), 노(勞), 체(體) 4-H이념을 실천하고,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 정신을 다짐하는 봉화식을 개최하는 한편, 보성군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을 열어, 청년4-H회를 알리고 젊은 농부의 꿈과 끼를 펼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예초기 안전사고 88% 여름철 집중... 주의 필요

- 올바른 점검과 사용법으로 안전사고 예방 당부 -

- 논두렁의 풀을 베어내거나 벌초작업에 이용하는 예초기는 다루기 쉬워 자주 사용하는 농업기계다. 그러나 빠르게 회전하는 칼날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 만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여름철 동력예초기 사용이 집중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법과 올바른 점검방법을 제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2015년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예초기에 의한 사고발생률은 5월부터 8월 사이에 88%로 나타났으며, 특히 7월에 43.8%로 집중됐다. 전체 농업기계별 사고발생률은 예초기가 17.2%로 경운기 49.7% 사고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 예초기 사고는 칼날이 돌 등에 부딪히면서 다치는 경우가 37.5%로 가장 많았다.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가 50%, 운전 미숙과 안전장비 미착용이 25%로 인적 요인 비율이 높았다.
- 예초기 사용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 전 기계점검, 보호장구 착용, 올바른 사용법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기계점검

- 예초기의 각부의 볼트·너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이상여부를 살핀다. 연료통을 확인해 연료가 새는지 확인하고, 연료가 부족할 경우 보충한다. 특히 엔진속도조절 와이어와 전기선이 플렉시블 케이블에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보호장구 착용 및 작업환경 점검

- 사용 전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작업할 장소 주변에 빈 병이나 돌 같은 위험요인은 치우고, 보조 작업자와 작업내용을 미리 협의한다.

□ 예초기 사용 시

- 기계를 다룰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한다. 사용 중 기계가 흔들리거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시동을 끄고 칼날이 갈라졌거나 휘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작업 중 풀이 칼날에 잠긴 경우에는 반드시 시동을 끈 뒤 풀을 없애준다.



□ 예초기 사용 중

- 작업 도중 휴식 등으로 예초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평으로 놓고, 작업을 마치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칼날이 몸을 향하지 않도록 한다.

□ 예초날 선택

-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판과 안전덮개를 장착한다. 2도날 대신 이물질과 충격이 덜한 안전날을 사용하거나 예초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제초용 나이론 줄을 사용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	안전화 및 보호장구 착용	허리보다 낮은 작업	예취작업 방향

【예취작업 요령】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수출딸기 대상국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 지침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수출딸기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확대를 위해 홍콩·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 8국가에 대한 맞춤형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발간 보급하고 수출단지별로 안전성 컨설팅 및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한다.
- 딸기는 파프리카와 배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효자품목으로 2016년 수출량은 3,539톤 3,245만달러로 해마다 성장해 왔다.
- 그러나 세계 각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PLS) 도입 등 식품안전 관리제도가 강화되면서 최근 대만 수출 딸기의 안전성 위반으로 통관이 금지 등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번에 발간 보급하는 『수출딸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홍콩·일본 등 8나라에 대해 적용 병해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목록과 함께 최종살포일, 살포횟수, 희석배수, 그리고 양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수록하여 수출농가에서 대상 국가별로 잔류농약 걱정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발간된 지침서는 수출관련 기관, 업체 및 농가 등에 보급하여 수출 딸기의 안전성 확보와 신규시장 개척에 활용할 예정이다.
-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발간도서) 누리집에서 e-Book으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딸기는 대부분 생식용으로 소비되는 만큼 앞으로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천적 등 친환경농자재의 병행 사용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계인으로부터 신뢰받는 딸기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가을의 시작, 입추(立秋)

- 24절기 중 열세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양력으로는 8월 8~9일 무렵이고, 음력으로는 7월 초이며 2017년은 8월 7일이다.
- 대서(大暑)와 처서(處暑)의 사이에 들어 있으며,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다. 이날부터 입동(立冬)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한다.
-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익어가는 때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야 한다. 조선 시대에는 입추가 지나서 비가 닳새 이상 계속되면 조정이나 각 고을에서는 비를 멎게 해달라는 기청제(祈晴祭)를 올렸다 한다.
- 입추는 곡식이 여무는 시기이므로 이날 날씨를 보고 점친다. 입추에 하늘이 청명하면 만곡(萬穀)이 풍년이라고 여기고, 이날 비가 조금만 내리면 길하고 많이 내리면 벼가 상한다고 여긴다. 또한 천둥이 치면 벼의 수확량이 적고 지진이 있으면 다음해 봄에 소와 염소가 죽는다고 점친다.
- 입추가 지난 뒤에는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가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이때에 김장용 무와 배추를 심어 김장에 대비한다.

- 이 무렵에는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거의 전국적으로 전해진다. 이 말은 5월이 모내기와 보리 수확으로 매우 바쁜 달임을 표현하는 『밭등에 오줌 싼다』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말이다.
-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이 속담은 입추가 되면 날씨가 좋아서 벼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귀가 밝은 개가 벼 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벼가 빨리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벼가 쭉쭉 커서 풍년을 되길 기원하는 농사꾼들의 마음을 담았다.
- 입추에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8~10월에 제철을 맞는 전복은 대표적인 보양식이고, 감자와 옥수수, 포도를 먹었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46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